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, 사회부 기자
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(담당 : 이강준 : 723-5302,)
제 목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홈페이지(<http://assembly.pspd.org>) 개통
날 짜 2000년 6월 5일 (월) (총 2 쪽)

보 도 자 료

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정감시 전문 홈페이지(<http://assembly.pspd.org>) 개통

- 제 1기 사이버 의정감시단 모집 (6월5일 ~ 8월 31일) -

-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첫번째 정치개혁캠페인 "사이버 정보공개청구운동" 돌입 -

1.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6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의정감시 전문 홈페이지(<http://assembly.pspd.org>)를 개통했다. 홈페이지 개통과 동시에 "제1기 사이버 의정감시단"을 모집하는 한편,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정치개혁캠페인의 첫 사업으로 "사이버 정보공개청구운동"을 시작했다.
2. 이날 개통한 의정감시센터 홈페이지는, 우선 현역의원 273명의 경력·병역·재산·납세 실적 등 기본적인 자료를 공개했으며, 앞으로 각종 법안의 표결행태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발언 등 의정활동의 내용을 꼼꼼히 모니터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책임지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.
3. 이와함께 의정감시센터는 사이버 의정감시단을 모집해 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정치개혁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. 제 1기 사이버 의정감시단원은 홈페이지(assembly.pspd.org)와 전화(02-723-5302)를 통해 8월 31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. 또한 사이버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역의원의 E-mail 주소를 공개했으며, 네티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 정치개혁 캠페인의 첫 사업으로 "사이버 정보공개청구운동"을 네티즌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. "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"은 우편이나 팩스 이외에도 통신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를 보장하고 있으나, 현재 행정자치부 등 일부의 중앙부처만이 시범적으로 인

터넷 접속을 받고 있을 뿐이다.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방안을 관련 기관이 조속히 만들도록 촉구할 방침이다.

※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<http://peoplepower21.org>